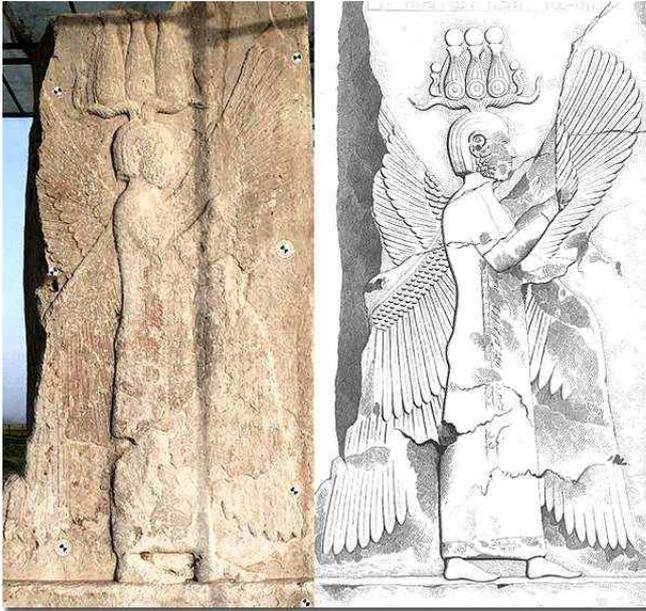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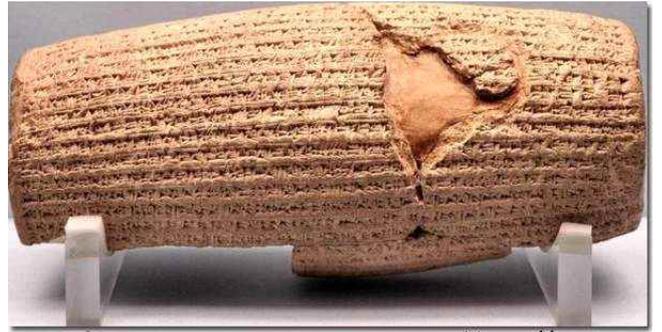
퀴루스의 칙령

“... 나는 오랫동안 폐허가 된 티그리스 반대편에 있는 이 성스러운 도시들로 신상들을 되돌려 보냈다. 그곳에 그 신상들은 있었고, 그 신상들을 위해 항구적인 성소들이 세워졌던 곳들이다. 또 나는 그 성스런 도시들에 거주했었던 주민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의 거주민들을 그 도시들로 되돌려 보냈다. 나는 신들의 위대한 주(主)이신 마르둑(Marduk)의 명령에 따라, 신들의 주의 분노로 인해서 나보니두스(Nabonidus)가 바빌론으로 가져온 수메르(Sumer)와 아카드(Akkad)의 모든 신들을 그 신들을 복되게 했던 장소들 곧 그 신들의 이전 신전들에 손상됨이 없이 다시 안착시켰다. 부디 내가 신성한 도시들에 안착시킨 모든 신들이 벨과 네보(Bel and Nebo) 신들에게 내가 장수케 해달라고 매일 빌어주기를 바라며, 또 그들이 나의 주이신 마르둑에게 내가 호감을 얻도록 좋게 말해 주기를 바란다.”

(Edict of Cyrus, 538 BC).



이란 파사르가다에(Pasargadae)의 퀴루스 대제의 부조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와 크세노폰은 퀴루스에 대해서 “사한샤(Shahanshah, 왕중의 왕), 페르시아 국민의 아버지, 이상적인 군주, 바빌로니아 유대인들의 해방자.”라고 기술하였다. 날개가 세 쌍인 것은 그가 페르시아 대국의 수호신이란 뜻이다.



퀴루스 2세(고레스, Cyrus, 559-529 BC) 황제의 실린더
이 실린더는 바빌로니아 에사길라(Esagila) 신전에서 발견되었다.
이 실린더는 길이 23cm, 직경 10cm 크기로써 여러 민족에게 종교와 주권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새겨문자로 쓰여 있다.
“... 나는 오랫동안 폐허가 된 티그리스 반대편에 있는 이 성스러운 도시들로 신상들을 되돌려 보냈다. 그곳에 그 신상들이 있었고, 그 신상들을 위해 항구적인 성소들이 세워졌던 곳들이다. 또 나는 그 성스런 도시들에 거주했었던 주민들을 모았고, 그 도시들의 거주민들을 그 도시들로 되돌려 보냈다. 나는 신들의 위대한 주이신 마르둑(Marduk)의 명령에 따라, 신들의 주의 분노로 인해서 나보니두스(Nabonidus)가 바빌론으로 가져온 수메르(Sumer)와 아카드(Akkad)의 모든 신들을 그 신들을 복되게 했던 장소들 곧 그 신들의 이전 신전들에 손상됨이 없이 다시 안착시켰다. 부디 내가 신성한 도시들에 안착시킨 신들이 벨(Bel)과 네보(Nebo)에게 내가 장수하게 해달라고 매일 빌어주기를 바라며, 또 그들이 나의 주이신 마르둑에게 내가 호감을 얻도록 말해 주기를 바란다.”
<Edict of Cyrus, 538 BC.>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

전부터 우리(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 두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왔다. 뿐만 아니라 신앙은 각자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따라서 우리 두 사람이 통치하는 제국 서방에서는 이미 기독교도에 대해서도 신앙을 인정하고 신앙을 깊게 하는 데 필요한 제의를 거행하는 자유도 인정했다. 하지만 이 묵인 상태가 실제로 법률을 집행하는 자들 사이에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따라서 우리의 이런 생각도 실제로는 사문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정제 콘스탄티누스와 정제 리키니우스는 제국이 안고 있는 수많은 과제를 의논하기 위해 밀라노에서 만난 이 기회에 모든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그것은 기독교도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를 신봉하는 자에게도 각자가 원하는 신을 믿을 권리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다. 그 신이 무엇이든, 통치자인 황제와 그 신하인 백성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준다면 인정해야 마땅하다. 우리 두 사람은 모든 신하에게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최선의 정책이라는 합의에 이르렀다. 오늘부터 기독교든 다른 어떤 종교든 관계없이 각자 원하는 종교를 믿고 거기에 수반되는 제의에 참가할 자유를 완전히 인정받는다. 그것이 어떤 신이든, 그 지고의 존재가 은혜와 자애로써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을 화해와 융화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면서.

-지령-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결단을 내린 이상, 지금까지 발령된 기독교 관계 법령은 오늘부터 모두 무효가 된다. 앞으로 기독교 신앙을 관철하고 싶은 자는 아무 조건도 없이 신앙을 완전히 인정받는다. 기독교도에게 인정된 이 완전한 신앙의 자유는 다른 신을 믿는 자에게도 동등하게 인정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가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것이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어떤 신이나 어떤 종교도 명예와 존엄성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훼손당하는 일이 많았던 기독교도에 대해서는 특히 몰수당한 기도처의 즉각 반환을 명하는 것으로 보상하고자 한다. 몰수된 기도처를 경매에서 사들여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반환할 때 국가로부터 적당한 값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여기에 명기한다. AD 313년 6월 밀라노에서 로마의 두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공표

니케아 공의회

325년 6월 19일에 니케아에 있는 황제 별궁에서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를 소집했으니 이것이 바로 제1차 니케아 공의회이다. 이때 참석한 주교는 318±2명이라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다.

공의회에 소집된 주교들은 기독교 공인 이전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극심했던 박해 때문에 한쪽 눈이 없던 주교도 있었고, 양쪽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주교도 있었고,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주교도 있었다는 사실이 공의회 교부의 기록에 등장한다. 신자들과 교부들 입장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상전벽해가 이루어진 셈이다.

공의회는 아리우스의 새로운 주장을 물리치고, 예수와 성부가 동일본체(homoousia)라는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오던 가르침을 발전시켜서 삼위일체론으로 정립하였다. 그리고 아리우스는 결국 그리스도가 성부와 성령과 똑같은 천주성(天主性)을 지녔다는 니케아 신경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여서 이단자로 결정되어 파문되었고, 그는 아우구스타 트레베로룸으로 유배를 갔다. 그리고 부활대축일의 날짜 계산에서는 요일과는 관계없이 유월절에 따라 유대력의 니산월 14일을 부활절로 정하고 기념하는 전통과 그 다음의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하고 기념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춘분 이후의 만월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지키기로 결정되었다.

규범

고자 : 고자는 성직자가 될 수 있으나,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은 안 된다. (규범1)

개종자 : 이단으로부터 개종한 자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성직품에 오를 수 있다. 신품성사 이전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드러나면 면직된다. (규범2)

가족 : 가정집에 모친과 자매 외에는 어떤 의심받을 만한 여인도 함께 있을 수 없다. (규범3)

주교 선출 : 주교는 교구에 속한 모든 주교, 최소 3명의 주교들의 선임과 그 외는 동의서신을 받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대주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규범4)

시노드(주교회회의) : 주교회회의는 일 년에 두 번 해야 한다. 사순시기 전과 가을 전에 개최되어야 한다. (규범5)

파문 : 주교에 의해 파문 된 자는 그 어느 주교도 복귀시킬 수 없다. 단, 무기력이나 다툼 외에 이와 비슷한 경우에 의한 파문은 제외된다. (규범5)

관할 구역 :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는 리비아, 펜데포리스를 관할하며, 로마 총대주교는 로마에 속한 지역을, 안티오키아 총대주교는 그 이외의 지역을 관할한다.

대주교의 판단에 거슬리는 주교는 주교 자격이 없다. (규범6)

성직 자격 : 검증 없이 신품성사를 받은 자가 이후 죄인임이 밝혀지면 면직된다. (규범9)

면직 :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타락한 성직자는 서품을 베푼 자와 함께 면직된다. (규범10)

회개 : 타락한 자는 관대함을 받을 만하건 못하건 간에 12년 동안 회개해야 한다. (규범11)

폭력 : 폭력을 참고 유혹을 물리쳤더라도 차후에 사악함에 빠졌다면 10년간 파문 당한다. 그 기간 동안 회개하는 생활은 철저한 감시와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규범12)

성체성사 : 임종에 있는 자는 영성체를 받는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면 기도와 준비를 한 후에 영성체 한다. (규범13)

예비신자 : 예비신자가 타락하면 3년 동안 다시 예비신자 준비를 한 후에 예비신자가 되어야 한다. (규범14)

구역 이탈 : 주교, 사제, 부제는 도시를 옮겨 다닐 수 없다. 계속 옮겨 다니면 소속 도시로 돌려보내져야 한다. (규범15)

소속 구역 : 사제 혹은 부제가 소속 교회를 이탈하여 다른 교회에 받아들여졌다면,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타 교구 소속인 자에게 신품성사를 소속 주교의 허락없이 베풀어졌다면 무효가 된다. (규범16)

고리대금 : 150%의 고리대금을 받는 자는 교회법규에 의해 파문된다. (규범17)

부제 : 부제는 자신의 구역에만 머물러야 한다. 부제는 사제에게 성체성혈을 베풀거나, 사제보다 먼저 영성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석을 하지 못한다. (규범18)

여성 부제 : 여성 부제가 타락하면 성직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평신도로 간주한다. (규범19)

기도 : 주일과 오순절에는 서서 기도한다. (규범20)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리스도교 상징 주화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주화

투구에 그리스도(XPISTOS)의 첫 두 글자 키-로(XP=CHR)를 새겼다. 동시대의 초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밀비우스 다리 전투(AD 312) 이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XP를 새긴 투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특별주화(AD 315)

투구머리에 그리스도(XPISTOS)의 첫 두 글자 키-로(XP=CHR)를 새겼다. 동시대의 초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밀비우스 다리 전투(AD 312) 이후 황제가 XP를 새긴 투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콘스탄티누스 대제(AD 272-337)의 라바룸 주화(AD 337)

전면에 월계관을 장식한 투상을 새겼고, 둘레에 '콘스탄티누스 대제'(CONSTANTINVS MAX AVG)라고 썼다. 뒷면에 뱀을 찌어 누른 라바룸(LABARUM)을 새겼고, 좌우에 '대중의 희망 콘스탄티누스'(SPES PVBLICA CONS)라고 썼다. 라바룸 상단에 '그리스도'(XPISTOS)의 첫 두 글자 키(X)와 로(P)를 겹쳐서 장식하였다. 콘스탄티누스는 꿈에서 IN HOC SIGNO VINCES(이 표식으로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는 문장을 듣고, 이 라바룸을 312년 10월 28일 밀비우스 다리 전투 때 처음 사용하여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십자가' 주화(AD 334-5)

전면에 갑옷차림에 월계관을 쓴 황제의 투상을 새겼고, 둘레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아우구스투스(CONSTANTINVS MAX AVG)라고 새겼다. 뒷면에 투구를 쓴 두 군인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각각 오른손에 거꾸른 세운 창을, 왼손에 땅에 내리꽂은 방패를 쥔 모습을 새겼으며, 둘레에 군대의 영광(GLORIA EXERCITVS)이라고 새겼다. 그리고 두 개의 군기(LABARUM)사이에 그리스도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새겼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십자가' 주화(AD 320)

전면에 갑옷차림에 오른쪽 어깨에 창을 걸친 황제의 투상을 새겼고, 임페라토르 콘스탄티누스 아우구스투스(IMP CONSTANTINVS AVG)라고 새겼다. 뒷면에 승리들이 서로 마주보고 서서 '로마 백성의 맹세'(VOT PR=VOTA POPVLI ROMANI)라고 쓴 방패를 붙든 모습을 새겼고, 제단 전면에 월계관과 그 사이에 그리스도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새겼다. 그리고 둘레에 '영원한 황에게 즐거운 승리'(VICTORIAE LAETAE PRINC PERP)이라고 썼고, 밑에 주조 마크인 PLN를 새겼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열린 성문' 주화(AD 307-337)

전면에 월계관을 쓴 황제의 옆 얼굴로 둘레에 콘스탄티누스 아우구스투스(CONSTANTINVS AVG)라고 새겼다. 뒷면에 열린 성문을 새겼고, 성문 위에 파수대와 별을 새겼으며, 아래에 초승달을 새겼다. 둘레에 비르투스 아우구스투스(VIRTVS AVGG)이라고 새겼다. 'VIRTVS'는 (남자다운, 탁월성, 용맹)을 뜻하며, 켈라의 'ARETE'에 해당된다. 황제는 성격과 열린 성문을 통해서 제국의 안정과 계보를 홍보하였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하나님을 향한 눈' 주화(AD 328-9)

황제는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였고, 자신의 취임 15주년을 기념하였다. 동시대의 초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황제가 제국의 금화에 자신이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세계적으로 한 것은 그의 영혼이 신성한 믿음의 능력에 얼마나 깊이 감명받았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고 진술하였다. 전면에 콘스탄티누스 아우구스투스(CONSTANTINVS AVGG)라고 새겼다. 뒷면에 두 개의 파수대 사이에 별을 새겼고, 둘레에 아우구스투스들의 예지(PROVIDENTIAE AVGG)라고 썼으며, 밑에 주조 마크(?)인 SMKB • 를 새겼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성격과 열린 성문을 통해서 제국의 안정과 계보를 홍보하였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하나님의 손' 주화(AD 337-340)

하나님의 손(Manus Dei) 주화는 황제가 사탕한 지루에 안대옥에서 제조되었다. 전면에 베일을 쓴 황제의 투상을 새겼고, 둘레에 신성한 콘스탄티누스 아우구스투스들의 아버지(DV CONSTANTINVS PT AVGG)라고 새겼다. 뒷면에 전차를 탄 황제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모습을 새겼다. 밑에 새긴 SMANNA는 주조마크이다.